



응답하라 2014

INDEX

1. 일

1) Cd 파트

2) yd 파트

2. 생활

3. 문화

4. 세계인권의 날

5. 카리타스 Annual ret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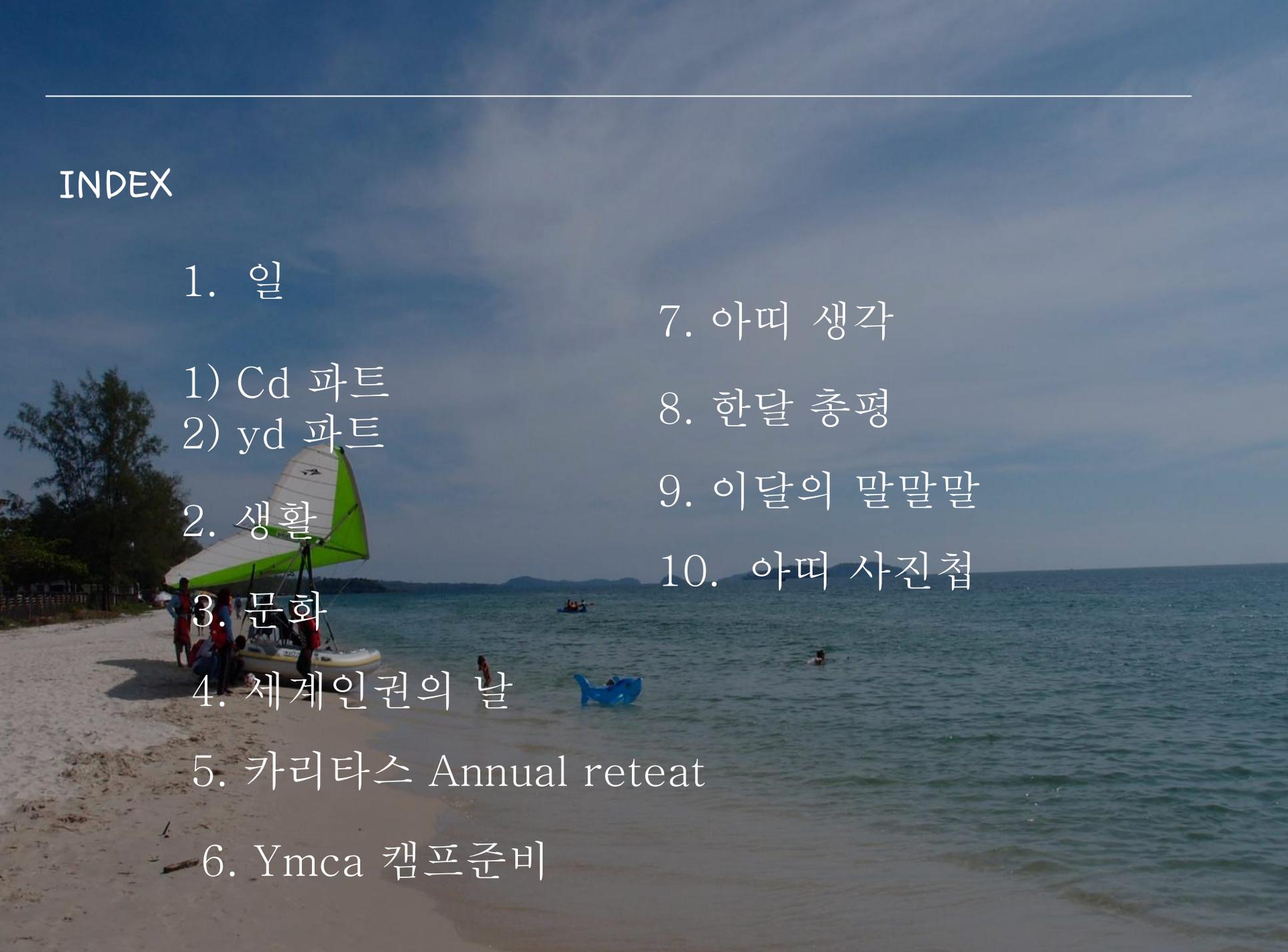
6. Ymca 캠프준비

7. 아띠 생각

8. 한달 총평

9. 이달의 말말말

10. 아띠 사진첩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 CD 주간미팅 - 한국어 수업	3 - CD활동 (Shed 만들기) - 한국어 수업	4 - CD활동 (Shed 만들기) - CD영어수업 - 한국어 수업	5 - CD활동 (Shed 만들기) - 한국어 수업	6 - CD활동 (Shed 만들기) - CD영어수업 - 쿠킹클래스 (잡채)	7 - 개인시간 - 프놈펜 (night market)
8	9 - CD활동 (Shed 만들기) - CD 영어수업 - 한국어수업	10 - 세계 인권의 날 (왓프놈 기념행사 참여)	11 - CD활동 (Shed 만들기) - 한국어수업	12 - CD활동 (Shed 만들기) - Face Painting - 한국어 수업	13 - 한국어 수업	14
15	16 - Caritas Annual Retreat	17 - Caritas Annual Retreat	18 - Caritas Annual Retreat	19 - Caritas Annual Retreat	20 - Caritas Annual Retreat	21
22	23 - CD 주간미팅 - 한국어 수업	24 - CD활동 (Shed 만들기) - 한국어 수업	25 - 성탄절 나들이 (드림랜드)	26 - CD활동 (Shed 마무리) - 한국어 수업	27 - CD활동 (양파 재배) - CD 영어수업 - Youth 센터 Final Test	28 - Home party
29	30 - YD센터 송별파티	31 - CD활동 (발갈기) - 한국어 수업 - 연말 파티 - 카운트다운				

1. 일





1) cd 파트

그린하우스 건축



아띠들은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그린하우스(Shed)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아띠들이 12월에 그린하우스를 만든 곳은 Chrey Rayuang 마을의 얼라 아저씨 집이었다. Chrey Rayuang 마을은 9월 방문 후 가지 않았던 마을이고 은지단원과 유선단원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띠 모두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걱정과 설렘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과 설렘도 잠시였고, 얼라 아저씨는 꼼꼼하고도 섬세하게 아띠들에게 일을 시키셨다. 아띠들도 두 번째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지 않고 얼라 아저씨와 함께 그린하우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린하우스 건축



얼라 아저씨 집에서의 작업은 브은형 때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나무를 연결할 때 나무 끝 부분을 잘라서 못으로 연결했던 브은형 방식과는 달리 나무를 통째로 굵은 철사로 조인 후 못으로 박아서 연결하였다.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 구멍의 3분의 2정도를 흙으로 채운 후 나머지를 시멘트로 채웠다. 브은형 집에서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띠들은 아띠들의 활동을 담당하는 썸남형에게 시멘트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썸남형은 시멘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폭우가 내렸을 때 시멘트가 쓸려나가지 않아서 기둥이 뒹비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시멘트로 인해 땅 속에 있는 해충들이 나무를 갉아 먹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브은형 집에도 시멘트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는 언질을 주었다.

그린하우스 건축



지붕천막을 덮는 작업도 브은형 집에서 작업할 때 고민을 반영해서 방법을 바꿔서 진행했다. 브은형 집에서는 지붕천막을 한 개씩 잘라서 위에서 연결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밑에서 필요한 만큼 다 연결 한 후 지붕에 올려서 한번에 지붕을 덮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필요한 양을 잘못 계산해서 옆 면에 사용될 천막을 추가적으로 지붕 천막으로 사용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또한, 그린하우스 옆면을 천막으로 두를 때 브은형 집에서는 한 면 한 면 필요한 만큼 잘라서 연결했다면 얼라아저씨 집에서는 천막을 길게 잘라서 연결했기 때문에 한 면은 충분했다. 하지만 다른 면을 두를 천막의 길이가 부족해 중간에서 연결했기 때문에 브은형집보다 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린하우스 건축



그린하우스를 완성 한 후, 땅을 갈고 채소를 심을 준비를 하였다. 얼마아저씨 집에서 아띠들이 심은 채소는 작은 양파였는데 반 토막을 내서 잘린 부분이 윗면으로 가게 땅에 심었다. 그리고 잘린 건초를 덮어서 마무리 했는데, 그 이유는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강한 햇빛이 채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활동은 아띠들이 그린하우스를 만들고 작물을 심는 것까지 전부 참여해서 같이 했다. 따라서 이 곳에서 톨린 땀만큼 좋은 채소들이 많이 재배되어서 얼마아저씨 집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CD 영어교실

알파벳 반은 11월의 고민이었던 아이들의 연령대가 낮아져 알파벳 수업을 힘겨워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방식을 바꿔서 진행해보았다. 간단한 영어 챗트를 이용하여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기존 수업을 진행할 때 잘 따라오지 못하고 지루해 하던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챗트에 나오는 노래와 단어들을 기존보다 잘 외웠기 때문에 다음 수업 시간에 단어를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많이 대답하였다. 문장반은 쓰라이 라와 워크북을 통하여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서 쉬운 동화책을 선정하여 같이 읽기로 하였다. 하지만 12월은 영어교실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격주로 매일 진행했던 기존과는 달리, 중간평가 이후 마을에 매주 오게 되면서 마을을 조금 더 알아보고 아띠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기 위해 수업을 월수금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요일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이 왔다. 게다가 월요일과 수요일에 회의와 공휴일로 인해 마을에 들어가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1주일간 가리따스 리트릿을 다녀오게 되어서 수업을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아띠들이 수업을 하러 가도 아이들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따라서 아띠들은 다시 매일 수업을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며 남은 한달 동안 아이들과 즐거운 영어교실이 되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페이스페인팅



아띠들은 국내에서 교육받았던 페이스페인팅을 마을아이들에게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약간 망설이는 듯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능동적으로 바뀌어서 아띠들이 준비해 갔던 도안에 있는 그림을 스스로 그리기도 하고 얼굴에 장난도 치면서 재미있어 했다. 하지만 수확철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들에 나가서 예상보다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했던 아띠들에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다.



마을 변화

아띠들이 마을에서 활동 한지 4개월이 지나면서 마을에 작은 변화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중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이 우리와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엄컨 집의 변화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엄컨의 며느리이자 돼지를 기르는 사브은 아줌마 집의 변화였다. 가리따스의 지원을 받아 돼지를 기르고 화이트와인을 만들어 판 돈으로 기존의 집을 허물고 방 3칸, 화장실이 1개인 벽돌집을 짓게 되었다. 그리고 아띠들이 그린하우스를 만들었던 브은형 집에서도 닭장을 짓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브은형 혼자 힘으로 닭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는 느렸지만 아들인 김홍과 김하가 아버지를 도와 같이 만들면서 브은형 집은 웃음이 넘쳐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버섯집인 스라이밍 아줌마 집은 버섯 집을 짜는 통을 새로 만들면서 예전보다 많은 양을 한번에 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작업양이 늘어나 몸은 더 피곤해보였지만 더 많은 버섯을 만들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다.





2) Yd 파트

한국어교실

교마반은 중간평가 피드백을 반영하여 기존의 수업방식을 대폭 수정하였다. 아이들이 5세~12세의 다양한 연령대인 만큼 모두가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한국어교실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교마반 담당 단원들의 특성을 살려 은지단원과 유선단원은 기타를 이용한 한국동요와 그림그리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방식이 수업보다는 놀이처럼 바뀌면서, 아이들이 동생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나 율동을 이용한 곰세마리¹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가사도 굉장히 잘 기억하였다. 중간평가 때 공수해온 색연필을 이용한 그림수업은 매 수업마다 또 하자는 요청이 들어올 만큼 아이들이 좋아했다. 4달째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아띠와 친해져서인지는 몰라도 매 수업마다 너무 열정적이 것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항상 사랑스럽다!



한국어교실

Youth반은 12월이 되면서 유스센터 아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싱숭생숭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끝으로 공식적인 수업을 마쳤다. 하지만 수업을 함께 듣는 라이아저씨와는 계속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라이아저씨께서는 예전에 NGO에 근무하셨을 시절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무척 잘 따라오시고 한다. 학생대비 선생님의 수가 많아 아띠 단원들이 역할이 남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꼬마반에서는 더 이상 선생님이 많아지면 오히려 복잡해질 것 같아 이 남는 인력에 대해 고민중이다. 1월에는 새로운 youth들이 입학할 예정이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새로운 한국어교실에 대해서는 보류중이다.



꼬마반! 크리스마스 파티하다!!



한국어교실을 찾아오는 꼬마반 친구들을 위해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예쁜 눈 모양 장식으로 교실을 꾸미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여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종이접기를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접었고, 2주에 걸쳐 배운 캐롤 '종소리'와 '노엘'을 신나게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남아에만 있는 쪄리 양말에 맛있는 간식을 넣어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눠주었다. 눈 오는 크리스마스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눈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기념 사진도 찍었다. 어느 나라나 아이들이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파티를 하면서 캄보디아에서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신나게 보냈다.



Korean cooking class



이번 12월에는 잡채와 김치를 만들었다. 두 음식 모두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잡채는 예상보다 재료가 부족해서 음식양이 모두가 나눠먹기에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2013년의 마지막 쿠킹클래스의 주제였던 김치는 맛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법에 유난히 관심을 많이 받은 음식이었다. 김치수업을 맡은 의성단원과 광욱단원은 수업전날 늦은 밤까지 여행연습을 했다. 그 노력 덕분에 김치는 정말! 맛있게 만들어졌고, 특히나 스태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오덤선생님은 직접 김치 속을 채우는 과정에 참여하시고, 그 자리에서 밥 한 그릇을 똑딱 비우시고 김치 한포기를 싸가셨다. 많은 스태프들이 레시피를 요청해서 영어로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액젓과 고춧가루, 매실청 대신 현지에 구할 수 있는 재료도 함께 적어 넣었고, 귀국 전에 센터 하우스스키퍼 어머님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을 한번 더 가질 예정이다.



Youth들과의 파티

12월을 마지막으로 youth들의 1년 과정이 끝나면서 졸업식을 앞두고 아띠들은 유스들과 두번의 파티를 가졌다. 지난 11월에 이사한 새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하였는데, 쿠킹클래스 때 인기가 많았던 닭볶음탕과, 부추부침개, 그리고 다양한 과일을 이용한 화채를 준비하였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눠먹었는데, 남은 소스에 밥까지 비벼 싹싹 볶아먹을 만큼 맛있게 먹어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집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감뽕찌아 사람들이 즐겨하는 놀이인 싸이도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다.



Youth들과의 파티

또, Youth졸업파티에 함께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비록 집이나 직장에 먼저 가게 되어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4개월간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으로움을 추면서 다 함께 놀았다. 앞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마지막 인사를 포옹으로 대신했다. 아띠들이 처음 캄보디아에 왔을 때 누구보다도 많이 도와주고 반겨준 친구들만큼 앞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





2. 생활

쓰레기통 만들기

새로운 집에서 살다 보니, 집 주변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집마다 쓰레기를 모아 따로 내어 놓으면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길에 다니면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냥 바닥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아띠들은 아띠집 앞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아띠들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런 고민 끝에 재활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아띠집 앞에 설치했다. 설치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었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길에 떨어진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웃집 잡채 돌리기

아띠들은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와서 주변 이웃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관계를 맺고 싶었다. 11월 19일에 이사를 왔지만, 이런 저런 일들로 바빴아서 이번 달이 되어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다. 아띠들은 한국에서도 이사를 오게 되면 이웃집에 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는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아띠들도 처음엔 떡을 돌리려고 했으나, 떡이 비싸서 다른 한국음식인 잡채를 해서 이웃집에 인사를 드리며 다녔다. 이사를 왔을 때, 아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있었고,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었다. 물론 처음 만났는데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경계의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다. 앞으로 주변 이웃들과 자주 인사하고 자주 만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3. 문화

자유여행



이날 광욱,보람,은지 단원 3명은 왕립 프놈펜 대학교에 갔다. 토요일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있었고, 넓은 잔디밭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 배드민턴이나 '싸이(제기와 비슷한 게임 종목)'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어릴 때 흔히들 상상했었던 대학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CKCC(한컴협력센터)에서는 KOICA에서 지원하는 많은 한국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선,의성단원은 프놈펜 여기저기를 걸어서 돌아다녔다. 천천히 걸어서 프놈펜을 돌아다니다 보니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곳들도 보게 되고, 매번 보던 곳들도 매번 보던 것과는 또 다르게 보였다.

자유여행



그리고 나서는 저녁에 프놈펜 강변에서 5명이 만나서 같이 Night market을 구경하러 갔다. 가는 길에 보람, 은지단원은 한국에서 '닥터피쉬'로 유명한 물고기들에게 먹이도 주고^^. Night market은 프놈펜에서 유명한 시장 중 하나이다. 강변에 있는 야시장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매일 저녁마다 공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공연을 해서 공연도 구경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나들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또다시 프놈펜으로 나들이를 떠났다. 매번 프놈펜에 갈 때마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드림랜드에 갔다. 놀이기구를 무서워하는 유선단원을 '빼고' 바이킹도 타고 이즘모를 놀이기구들도 탔다. 바이킹을 탈 때는 바이킹이 통째로 떨어져 나갈 듯한 스릴감을 느꼈다. 그리고 귀신의 집.. 한국처럼 기구로 귀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귀신분장을 하고 튀어나와서 신기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나가월드도 구경했다. 호텔과 카지노가 함께 있는 나가월드. 카지노에서 게임은 하지 않았지만 복권 같은 것도 해보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녔다. 그리고 Happy herb pizza라는 가게에서 저녁을 먹으며 각자 서로에게 준비한 선물들과 편지를 교환했다. 여기저기 많은 것들을 하고 다녀서 몸은 피곤했지만 정말 재미있는 나들이였다.





អបអរសាទរខួបទី ៦៥ ទិវាសិទ្ធិមនុស្សអន្តរជាតិ ១០ ធ្នូ ២០១៣
Congratulations on the 65th Anniversary of Human Rights Day, 10 December 2013

4. 세계 인권의 날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 행사

매년 12월 10일. UN에서 선포한 세계 인권선언 채택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8년 12월 10일 제 3차 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했고, 1950년 제 5차 UN총회에서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선포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날에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운동이나 기념행사를 행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이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한다. 이날 '왓 프놈'에서 기념행사와 더불어 거리행진을 한다고 하여 아띠들도 Caritas 스태프들, Youth 학생들과 함께 이 행사에 참가했다.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캄보디아 통합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의 당수인 '섬 랑씨'가 집회를 주도해서 머리에 띠를 두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기념행사가 집회현장으로 바뀌었다. 결국 거리행진은 하지 못하고 센터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5. Annual Retreat



Annual Retreat

아띠들이 활동 하고 있는 캄보디아 카리타스는 연 말에 Annual retreat을 통해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각 지역의 모든 식구들이 모인다. 아띠들도 카리타스의 한 식구로서 12월 16일~20일 동안 캄땡싸움(‘시하눅빌’이라고도 하는 해변)에 다녀왔다. 이 기간 동안 오전에는 서로 다른 지역의 1년간의 활동에 대한 발표를 들었고, 오후에는 몇몇 지역별로 팀을 묶어 배구, 탁구, 축구와 같은 운동경기를 했다. 또한 저녁을 먹은 이후에는 ‘Culture time’으로 각 지역 별로 재미난 Role play도 했고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캄보디아 답게 중간중간 계속 해서 춤을 추기도 했다. 매년 Annual Retreat 때는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해를 준비하며 서로의 멤버십을 다지기 위해 하나의 주제문구를 만드는데, 2014년의 문구는 ‘Together we can do more’였다. 모두가 저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아띠들도 Retreat 이후 여러 스텝들과 더 많이 친해지면서 함께함의 즐거움을 더욱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nual Retreat

PRESENTATION



← 오전 전체 발표시간

카리타스에서는 CD(community development), YD(youth development), Health care, 긴급구호, Mental care center 를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누어 활동 하고 있다. 크메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지만 친한 스텝들 옆에 꼭~ 붙어 열심히 설명을 들은 아띠들!

운동경기 시간 →

아띠들도 탁구와 축구 경기에 참여하여 스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의성단원이 속한 깐달 CD팀은 무려 준우승을 차지 했다.



Annual Retreat

문화시간

아띠들도 아띠들이 활동하고 있는 깐달팀의 스텝들과 함께 role-play에 참여하였다. National office팀에 관광객 까메오 역할로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의성단원은 상의를 탈의하는 열정을 보이며 깐달팀의 role-play가 가장 인기 있었던 팀이 되는데 한 못했다고 한다.



← 크리스마스 파티

19일 밤,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뽑기도 하고 폭죽을 터트리며 춤을 추기도 했다. Retreat을 위해 'Tell me'를 준비해갔던 아띠들은 첫 날의 공연 이후 이렇게 춤을 출 때 마다 함께 나가야 했다는 즐거운 소식이..



바다에서

마지막 날 모든 운동경기가 끝나고 다 같이 해변에 놀러 갔다. 캄보디아에서 처음 와 보는 바닷가라 신이 난 나머지 모래 인어가 될 뻔한 유선 단원..



6. 캠프 준비



캠프 준비

아띠들은 아띠들이 국내 훈련을 받은 수원 YMCA와 이천 YMCA가 함께하는 청소년 단기 자원 활동 캠프의 호스트가 되었다. 현지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아띠들이 프로그램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단기 자원활동의 대안적인 모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띠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스텝들과 소통하고 또 한국의 간사님들과도 이야기를 하며 라온아띠의 이름처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직접 활동할 마을 집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또 할 수 있는지 고민하거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놓고 오기도 하고 숙박할 곳과 식사할 곳을 스텝과 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찾는 등 **'Together we can do more'**의 힘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따로 시간을 비워 놓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아띠의 활동을 이어가며 짬짬이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스텝들도 연말과 연초로 가장 바쁜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7. 아띠 생각



광욱 개인소감

11월의 고민거리가 '나의 반성'이었다면, 12월의 고민거리는 '반성'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게 좋은 사람일까 고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서 스스로 정의 내려보고 고민해보았다. 하지만 12월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나에게서는 이 고민은 어려웠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동물은 사람들 속에서 다시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내려놓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다. 여전히 서투르고 직설적이고 자기 주장도 강하지만 조금씩 내려놓다 보니 알고 있던 사람들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만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했고 나 혼자만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내려놓는다는 핑계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덮어두려고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진짜 내려놓는다는 것은 한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아닐까? 이제 캄보디아에서의 생활도 한 달 남았다. 이곳에서 했던 고민들이 한국에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보람 개인소감

12월 달이 되면서 부터 그 전 달들 보다 훨씬 바빠짐을 느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만큼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 할 수 있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너무 나도 잘 자라게끔 하기 위해 내가 나에게 너무 꾸지람과 동시에 질책을 하지 않았나 싶어 내 자신에게 미안한 달 이였기도 하다.

그리고 수원에서 훈련을 하던 한 달을 포함해서 거의 5개월을 지내면서도 내가 여전히 고민하고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 하는것. 트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한다는 것. 다른 이들에게는 어쩌면 너무 나도 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아직까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 자체를 '그것'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야 말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제 정말 한 달 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진 않지만...그래서 솔직히 헤어질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정말 마무리를 시작해야 하는 달이니 만큼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이들을 좀 더 사랑하고 좀더 께안아 주어야 겠다.

의성 개인소감 (1)

12월은 이때까지 다른 달보다 유난히 시간이 빨리 흘렀던 한 달이었다. 중간에 시하늬빌로 Caritas Annual retreat을 다녀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번에도 그렇고 매번 느끼는 것.. 캄보디아사람들은 정말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다. 파티나 행사에 초대받아서 갈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그렇게 많이 춘다. 내가 춤을 추는 걸 싫어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춤추러 나가자고 등을 떠밀 때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다. 춤 추러 나갈 때마다 1년 씩 늙는 것 같았다.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팀원들을 보며 매번 아..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다..라고 느꼈다. 캄보디아 전통 춤도 배우고 싶었지만.. 저주받은 몸이라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 π π 그런데 Retreat 때는 나를 내려놓았다. 파티를 할 때 그냥 이상한 몸짓을 하며 춤도 추고 파티를 재미있게 즐겼던 것 같다. 그리고 Retreat을 함께 다녀오면서 이전까지 그냥 센터에서 만나면 인사만 나누던 스텝들과도 지금은 서로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웃고 떠들며 쉽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Retreat때 같은 팀으로 축구를 해서 그런지 CD스텝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스텝들과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관계를 많이 쌓을 수 있었다. 현지 기관과 아띠들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다.

의성 개인소감(2)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아띠끼리도 많은 좋은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다. 서로 더 많이 친해지고 서로간의 믿음도 더 단단해 진 것 같다. 예전에는 마음 속에 담아 놓았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민감해서 쉽게 꺼내지 못했는데, Retreat을 다녀 온 후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좀 편안해 진 느낌이다. 정작 팀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냥 혼자서 불안해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성탄절에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동생들이 편지를 줬는데, 집에 돌아와서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말이 아니라 편지로 마음을 써서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매번 생각은 하지만.. 편지를 쓰는 게 정말 오그라들어서.. 팀원들에게 아직도 못쓰고 있다. 언젠간 한 번쯤은 쓰겠지..? ㅋㅋ 이제 진짜 정말 캄보디아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1월에 수원에서 아이들 캠프 오면 일주일 휴~ 가버리고, 마지막 휴가를 받는다면 또 일주일 휴~ 가버리고.. 2월이 금방 올 것 같은 느낌이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점점 커지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또 캄보디아에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그래도 남은 한 달 동안 광욱, 유선, 은지, 보람 다들 힘내서 열심히 하자.^^

은지 개인소감

다들 그렇겠지만 아씨의 다섯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시간이 빨리 가는 때 인 것 같다. 특히 이번 달 시하늬빌에 리트릿을 다녀온 이후로는 눈 깜빡 할 때 마다 하루가 지나는 것 같다. 리트릿은 여러 면에서 '이것이 카리타스 캄보디아'라고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많이 친해지지 못했던 스텝들과도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나눈 시간이었다. 특히 캄보디아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모판이라는 스텝은 (my daddy와 my son으로 부르는) '한국으로 돌아 가면 너의 진짜 부모님께 너 같은 좋은 lady를 세상에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할 정도로 가까워진 스텝이다. 또 우리 함께 활동을 하지 않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스텝들과도 친해지고 나니 많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다. 서로가 보이면 다가가서 장난을 치고 말을 걸고, 서로에 대해 더 궁금해 하고....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눈을 부릅뜨고 조금이라도 더 담아가고 싶어졌다. 오늘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마음의 깊이는 나누는 이야기의 양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에 꼭 비례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고작 4개월 산 나에게 새로 만난 아빠,엄마,언니, 오빠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너무도 귀하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남은 한 달은 '한달 뿐'이어서 너무 아쉽고 '한달 이라도'남아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시간이다.

좋은 친구, '라운아띠',가 되려고 왔지만 내가 생각하는 라운 아띠는 '좋은 친구'를 선물 받는 시간 인 것 같다.

유선 개인소감 (1)

중간평가 전까지 이곳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너무 많아져서일까.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12월, 나의 한달 주제는 '눈 마주치기'였다. 내 눈과 그리고 내가 찍는 사진의 눈도. 그러면서 12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애기들- 센터주변 아이들과 Cd마을 아이들, 이제는 일을 가지 않는 휴일에도 애기들이 보고싶어서 종종 마을에 찾아가곤 한다. 그럴때마다 "레악스마이!! 쳐!!"하면서 쪼르르 달려오는 애기들을 볼때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풀린다. 12월 초에는 헤어지는 날 어떡하지를 고민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얻은 해답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사랑하면서 살자는 것! 예전보다 더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했고, 더 열심히 집에 함께 가면서 새로운 아이들과, 마을 어머님, 아버님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는 아이들 덕에 수업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럽다! 특히나 남자아이들이 요즘엔 어찌나 귀여운지!!!! Cd마을 아이들 중에 소치으라는 여자아이가 한동안 안보여서 정말 걱정했는데, 얼마전 나타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내 아띠생활의 비타민!!

'관계'는 나의 아띠 생활동안 항상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되는 주제인 것 같다. 중간평가 이후로 우리팀은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좀 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우리들만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더 좋아졌다.

유선 개인소감 (2)

12월에는 내가 있는 까리따스의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Annual Retreat를 다녀왔다.

정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했다.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한 네셔널 식구들, 밤하늘에 퍼지던 폭죽, 아름다운 밤바다에서 맹선생님이 사주신 소원등불, 그리고 준비해갔던 우리팀의 댄스까지^^ 캄보디아 까리따스 전 직원이 모이는 만큼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 현지 사무실 식구들과 엄~청 친해진 것이다. 예전에는 스태프와 아띠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그 사람의 일상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이렇게 좋은사람들을 왜 이제서야 느꼈는지 정말 아쉽다.

새로운 관계맺기를 했다면, 4개월을 함께한 유스친구들이 졸업을 했다. 친구들의 마지막 졸업시험이 있던 날, CD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짐을 싸서 일자리로,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부랴부랴 챙겨놓은 사진을 주었을 때, 톤이 이 사진 영원히 잊지않을게 고마워! 라고 하고 떠날 때, 기분이 굉장히 묘했다. 사실 국내훈련에서의 귀국단원들의 “아띠 다녀오면 더 이상 아시아사람이 남이 아닌 친구로 느껴진다.”는 말 정말 공감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유스친구들과 2개월간의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그 말을 어느순간 이해하게 되었다. 4개월 전, 낯선 땅에 떨어진 우리 다섯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도와주고 사랑해줬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이 떠난 지금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앞으로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유선 개인소감 (3)

앞으로 다가올 1월은 정말 빨리 지나갈 것 같다. 아띠가 호스트가 될 <수원-이천 청소년캠프>, 그리고 우리의 휴가, 그리고 귀국 전 인사, 그냥 지금을 사랑하면서, 우리팀, 우리애기들, 우리스텝들, 마을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캄보디아에 다시 보내준 아띠담당자님께 처음엔 원망만 했는데,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다릴 가족, 남자친구, 친구 모두에게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날 잘 살다가야겠다!



7. 한달 총평

1. 일

- 현지에서 와서 처음 방문했던 마을인 '츠레이 레용'에서 계속 활동하지 않다가 이번 기회에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츠레이 레용' 마을 중에서도 한 농가와만 함께 일해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 또한 12월 중간에 caritas retreat을 다녀와서 일 시기의 공백이 생겼었다.
- 12월 한 달 동안 마을 영어수업을 몇 번 방문하지 못해서 지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했다.
- 영어수업이나 한국어 수업에서 아이들의 연령층이 낮아져 수업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방향이 바뀐 뒤에는 수업이 조금 산만해 지긴 했지만,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생활

- 새로 이사온 집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었다.
- 집에서 요리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음식을 해 먹게 되었다. 아띠들이 현지에서 있는 만큼 캄보디아 현지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 새로 이사온 집의 근처가 시장이어서, 현지의 음식이나, 과일들을 많이 먹을 수 있었다.

3. 관계

- retreat을 다녀오면서 친하지 않았던 스텝들과도 많이 친해지게 되어 더 사이가 깊어졌다.
- 4개월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유스들을 떠나 보내기 전에 아띠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과 함께 small party를 했다.
- 아띠들도 우리끼리의 시간을 가지며 친목다짐을 했다.
- 이번 달엔 새로운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처음 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조금의 어려움을 겪었다.



9. 이 달의
맘맘맘

크녕 엇짱 떠으웬 꼬레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ㅠ ㅠ)

엇 짜 트워까, 엇짜 크마에
(일도 못하고 캄보디아 말도 못해~)

쏟아오이 베이 동 ♥
(당신의 심장을 주세요!(캄보디아
의 고백 멘트 중 하나))

엇 미은 썩사
엇 미은 조이
엇 미은 쭈 리응

(애인도 없고, 돈도 없고, 파티도 없다
ㅠ ㅠ)



10. 아띠 사진첩









